

아동의 빈곤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르는 게 약인가?

이수진* · 이정애** · 이은희*** · 정익중****

초 록

본 연구는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동의 빈곤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빈곤의 객관적 지위와 상관 없이 빈곤하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과 빈곤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에 따라 그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객관적 지위보다 주관적 인식이 아동 삶의 만족도에 훨씬 더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객관적 상황과 상관없이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은 아동발달에 있어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동일한 빈곤아동이라도 빈곤아동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빈곤, 빈곤아동, 빈곤인식, 삶의 만족도, 긍정적 착각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용인정신병원 사회사업과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ichung@ewha.ac.kr

I. 서 론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의 영향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부정적 발달을 가져 온다고 알려져 있다(Duncan & Brooks-Gunn, 1999). 그러나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응수준이 좋은 아동이 있고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도 있다(정익중, 민성혜, 박은미, 신혜원, 전해정, 2013). 이러한 아동간의 차이를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어려움으로 해석(홍순혜, 방진희, 엄경남, 2013)하기도 하고, 빈곤 자체의 객관적 상황보다 아동이 자신의 빈곤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빈곤층의 ‘빈곤인식’이 객관적인 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승기, 2008a)에 착안하여 이러한 빈곤아동간의 적응수준의 차이를 아동의 빈곤인식 차원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이 일치하는지,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차이가 빈곤아동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빈곤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풍부한 연구와는 달리, 빈곤한 상황에 대한 아동인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빈곤한 아동은 자신의 세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 관련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경험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문선화, 류기형, 김경호, 이경남, 홍봉선, 2000), 빈곤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 역시 빈곤에 대한 아동인식으로부터의 이해가 중요하다(정선욱, 2011). 즉, 동일한 빈곤아동이라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빈곤을 체감하고 삶에 만족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 환경 내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빈곤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장희선, 김기현, 2014).

빈곤아동이 체감하는 주관적인 빈곤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함께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빈곤한 아동의 생활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아울러 긍정적인 영향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즉, 빈곤아동 스스로가 가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의 자기인식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체계가 역시 그들을 지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치에 대한 내·외부적 강화는 아이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 긍정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Weinger, 1998).

또한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긍정·부정 정서를 경험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곧 삶의 만족이란, 자신이 설정한 주관적 기준과 비교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인지요소이자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회노애락의 정서반응을 의미한다(이명숙, 2013). 더 나아가 아동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란, 긍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부터 보호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심리적 요인으로 간주된다(Huebner, 1991; McKnight, Huebner & Suldo, 2002).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최근 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아동기 삶의 만족도가 이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한 환경과 빈곤경험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빈곤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이는 비빈곤아동에 비해, 대체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방향은 향후 이들이 건강한 성인이자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주관적인 빈곤인식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지에 따라 아동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를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함께 비교·분석할 때 그 영향력은 더욱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객관적으로는 빈곤하지만 아동 스스로가 긍정적인 빈곤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객관적으로는 비빈곤하지만 아동 스스로가 부정적 빈곤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이 불일치하는 아동들을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 삶의 만족도 제고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아동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분석에 보다 초점을 두어 설명함으로써, 향후 빈곤아동들의 긍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더 나아가 빈곤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대부분인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 빈곤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에서의 지원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빈곤아동 정책의 다양화와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제언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빈곤아동의 발달과 빈곤에 대한 인식

많은 연구들은 빈곤이 아동의 건강, 인지, 학업성취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해 왔다(Sameroff, Gutman & Peck, 2003; Felner et al., 1995; Bradley & Whiteside-Nansell, 1997; McLoyd, 1998; Duncan & Brooks-Gunn, 1999; Luthar, 1999; Eamon, 2001; 구인회, 2002; 윤희미, 2005;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빈곤은 이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는 빈곤의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광혁, 2010). 즉, 가정이 빈곤한 경우 아동은 물질적인 자원부족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구인회 외, 2009),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애정훈육을 받기 어려워 물질적인 결핍 외에 심리·정서적 결핍을 경험하기 쉽다(이완정, 권혜진, 양성은, 2009). 빈곤은 아동의 삶의 질에도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빈곤한 아동은 비빈곤한 아동에 비해 빈곤과 발달영역에서 존재하는 여러 위험요인 때문에 개인적 발달, 가정환경, 학교생활적응, 지역사회 비행 등에 있어서 모두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김미숙, 2013).

하지만 한 개인이 다수의 위험요인들에 노출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들은 위험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에서도 잘 회복해나가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가진 하위집단들이 있고, 이로써 문제나 위험요인에 대한 면역을 증대시키고 위험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인·환경적 보

호요인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이때의 보호요인은 위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감소 시키거나, 위협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위협요인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위협요인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로의 차단을 돕거나 위협요인의 초기발생을 막는 형태로 작용한다(Coie et al., 1993; Fraser, Cass & Simoneit, 1999; 정익중, 김세원, 2011). 이러한 연구들은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 위협요인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양한 아동·청소년문제에는 공통적으로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이 함께 존재한다(정익중, 김세원, 2011).

최근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빈곤, 빈부격차,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 빈곤한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점들로 주관적 빈곤인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정선욱, 2011). 이때의 ‘주관적인 빈곤인식’이란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승기, 2008b). 빈곤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과 같이 소득과 박탈이라는 일종의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측정되거나 자신이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측정될 수 있는데(정선욱, 2011), 실제 하위계층의 ‘빈곤인식’은 객관적인 빈곤상태와 주관적인 빈곤상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승기, 2008a). 이는 객관적으로 빈곤한 사람 중에서도 개인적 경험에 따라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에 객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사람도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빈곤인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빈곤 아동이 생각하는 ‘빈곤’이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것(한 부모 또는 조손가족)으로 표현되며(정선욱, 2011) 그리고 ‘빈곤한 아동’이란 비빈곤 아동보다 더 착한 아이 또는 효자, 불쌍한 아이 등으로 묘사되어 ‘빈곤한 아동’은 대체로 자신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건강, 경제적인 문제까지를 고민하고 있는(정선욱, 2011) 빈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비빈곤아동은 ‘빈곤’을 일종의 결핍상황으로 이해하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 직업, 가족관계, 대인관계, 심리적 위축, 교육 기회 등의 전반적인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선욱, 2012). 이는 아동빈곤에 대한 정의를 성인과 같이 단순한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와 객관적인 빈곤과 아동의 빈곤인식간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의 문제제기로 이어진다(홍순혜 외, 2013).

아동은 처해있는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고재홍과 조기영(2003)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많은 왜곡이 있으며 대체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이나 세상을 본다 고 하였다. 또 자기인식이 분명 왜곡된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의미를 살려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이라 명명하고 이와 같은 긍정적 착각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정서적 안녕감(well-being)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 가난하지 않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빈곤인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송건섭, 정미용, 2011).

2. 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삶의 만족도란 주관적인 안녕감(well-being)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로서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만족의 정도는 삶에 대해 개인이 설정한 만족의 기준과 현재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상황간의 비교에 기초하므로 주관적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Valois, Zullig, Huebner & Drane, 2004). Day와 Jankey(1996)도 객관적 삶의 상황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평가가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의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 학교생활 등과 관련되고(Proctor et al., 2009), 긍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생활사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므로(Huebner, 1991; McKnight et al., 2002) 유용한 심리적 자원이 된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어린 시기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로(Bender, 1997; Lyons, Huebner, Hills & Horn, 2013; Martin, Huebner & Valois, 2008; Saha, Huebner, Suldo & Valois, 2010) 인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천희영, 송영주, 이미란, 2014). 김미숙(2013)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인지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자기이해에서 사회적 측면의 관심이 증가하게 되므로 연령이 어릴수록 빈곤을 인식하는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인식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는 영유아기에 느끼는 빈곤인식보다 아동·청소년기의 빈곤인식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흔히 빈곤아동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적 안녕감과 삶의 낮은 만족감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빈곤한 상황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방법, 또래관계, 결핍환경,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강현아, 2011). 또한 빈곤한 경제상황은 부모의 정서적 안녕과 부부 혹은 부모-자녀 관계, 가족과정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가족과정의 영향력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배화옥, 2008; 정은희, 이은아, 천성문, 2010). 즉, 빈곤한 상황으로 인한 가족 내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갈등을 증가시키고, 이는 또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Conger et al., 1990, 1993; 김광혁, 2006) 결국 부모와의 관계나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아동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아울러 빈곤아동이 여러 제약적 상황으로 인하여 학업성취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면, 아동발달 단계에서 상황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응이 발생하게 된다(신현균, 김태희, 2011). Bronfenbrenner(1979)가 생태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 지역 사회 등 사회적 환경에서 아동의 발달 및 생활적응 문제를 강조한 것처럼, 초기 아동 발달은 주로 가족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아동이 성장하게 되면 점차 가족을 넘어서서 학교, 친구, 이웃 등의 다양한 환경체계들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맺으며 발달하게 된다.

특히,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교사와 친구들과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화과정을 경험하게 되므로 학교생활은 아동의 성장발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성낙현, 표갑수, 2012), 학교생활을 통해서 아동들은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두루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만족스러울수록 학교적응에 더 유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비우호적이고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형진, 김규원,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 온 아동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통제변수를 구성해 분

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은 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빈곤아동의 긍정적인 착각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0년)에서 일반 2,508가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에서 추출된 기초수급 및 차상위 1,499가구를 포함한 총 4,007 아동가구를 표본으로 방문 조사한 자료이다. 전국적인 수준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세부적인 자료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어 아동의 현황을 집단별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다는 점, 일반아동과 저소득아동 비율이 6대 4로서 빈곤아동 관련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김미숙, 김은정, 이수진, 2014; 김광혁, 2014; 정익중, 2012)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자료는 본 연구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자료 중에서 아동이 직접 조사에 응답한 만 9~18세의 2,009가구의 사례를 추출해 분석에 사용하였고 저소득층의 과표집 때문에 전체아동 분석에는 표본가중치를 활용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 그리고 '긍정적 착각'과 '부정적 착각'이다. 종속변수는 아동 '삶의 만족도'이고 통제변수로는 아동성별, 가구

소득, 아동연령, 우울 및 불안감, 스트레스, 결핍환경, 자이존중감, 보호자와의 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친구애착이며 각각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 객관적 빈곤지위, 주관적 빈곤인식, 긍정적 착각, 부정적 착각

본 연구에서 ‘객관적 빈곤지위’란 실제 빈곤가구 여부로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에서 선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는 객관적 빈곤가구(1)로, 그 외의 가구는 객관적 비빈곤가구(0)로 코딩하였다. 또 ‘주관적 빈곤인식’은 아동이 인식하는 주관적 가정형편으로서, ‘여러분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1점~7점)’에 대한 응답을 보통수준(4)을 기준으로 1점(매우 못 산다)~3점(보통 미만)을 주관적 빈곤가구(1)로, 4점(보통 이상)~7점(매우 잘 산다)을 주관적 비빈곤가구(0)로 코딩하였다. 이어서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이란 객관적 빈곤지위는 빈곤가구(1)에 해당되나 주관적 빈곤인식을 비빈곤가구(0)로 하고 있는 즉, 빈곤아동에게 객관지위와 주관인식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에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이란 객관적 빈곤지위는 비빈곤가구(0)에 해당되나 주관적 빈곤인식을 빈곤가구(1)로 하고 있는 즉, 비빈곤아동에게 객관지위와 주관인식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의미하며 국제비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학생생활 만족도 척도(SLSS: 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내 인생은 딱 만족스럽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내 인생은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낫다’ 등의 총 7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매우 반대’ 1점, ‘반대’ 2점, ‘찬성도 반대도 아님’ 3점, ‘찬성’ 4점, ‘매우 찬성’ 5점이다. 이 중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다’ 등의 2개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을 실시해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구성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842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1) 기본요인: 아동성별, 연령, 가구소득

성별, 연령에 따라 빈곤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손태용, 정현정, 2014) 아동성별과 연령도 고려하고자 한다. 아동연령은 현재(만)나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아동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김광혁, 2010), 보호자로부터 월 평균 총 소득(‘귀댁의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을 가구원수(n)에 따라 균등화(\sqrt{n})하여 계산한 가구균등화소득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2) 위험요인: 우울 및 불안감, 스트레스, 결핍환경

우울 및 불안감은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번역한 K-CBCL척도의 내면화 행동문제 중에서 ‘외롭다고 불평한다’ 등 총 1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감도 높아지도록 구성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862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총 11개 문항을 활용하여 사용하였고 응답범주는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도록 구성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889로 나타났다. 결핍환경은 아동결핍(child deprivation)으로서 UNICEF(2012)의 문항을 수정 보완한 OECD의 아동결핍지표로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예’ 1점, ‘아니오’ 0점으로 측정되었고 모든 문항을 역코딩한 합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핍환경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보호요인: 자아존중감, 보호자와의 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친구애착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측정되었고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등 5개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807로 나타났다. 주보호자와의 관계는 주보호자관계척도를 통해 측정되었고 총 8문항의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911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4점 척도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업

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허락 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 등 3문항을 역코딩하였고, 높은 점수일수록 긍정적인 학교생활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795로 나타났다. 친구애착은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친구애착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787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빈곤아동들이 체감하는 '빈곤인식'은 언제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일치하지 않고, 이러한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새로운 보호요인일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 간의 긍정적 착각이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더 나아가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에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1과 같으며, 교차분석,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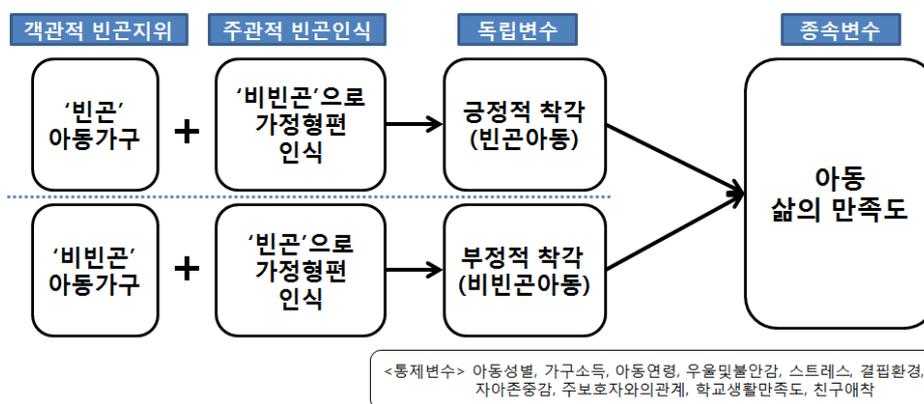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 결과

1. 응답아동의 일반사항

표 1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아동 2,009명(가중치: 2,279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동성별은 남녀아동이 49.6%와 50.4%로(가중치: 52.6%, 47.4%)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 연령대는 만9~11세가 31.8%, 만12~17세가 68.2%로(가중치: 28.1%, 71.9%) 구성되어 있다. 또 아동가구의 경제 상태는 수급가구 32.7%, 차상위가구 5.4% 비빈곤가구 61.9%로(가중치: 3.5%, 1.4%, 95.1%) 각각 나타났고, 아동가구의 거주 지역은 대도시 41% 중소도시 42.1% 농어촌 17%으로(가중치: 43.7%, 50.2%, 6.2%) 기술되었다. 또한 아동 가족유형은 일반가정이 62.5%, 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36.5%로(가중치: 85%, 14%) 나타났으며 아동의 학교급도 초등 40.9%, 중등 34% 고등 24.9%로(가중치: 37.4%, 35%, 27.6%) 나타났다.

표 1

아동(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응답아동(가구)의 일반사항		N(%)	N(%) <가중치 포함>
아 동 성 별	남자	997 (49.6)	1,200 (52.6)
	여자	1,012 (50.4)	1,080 (47.4)
아 동 연령대	만 9-11세	639 (31.8)	640 (28.1)
	만 12-17세	1,370 (68.2)	1,639 (71.9)
경 제 상 태	비빈곤		2,168 (95.1)
	빈곤	차상위층	31 (1.4)
		수급층	80 (3.5)
거 주 지 역	대도시		996 (43.7)
	중소도시		1,143 (50.2)
	농어촌		140 (6.2)
가 족 유 형	일반가정		1,938 (85.0)
	한부모 및 조손가정		319 (14.0)
아 동 학 교 급	초등학생		852 (37.4)
	중등학생		798 (35.0)
	고등학생		628 (27.6)
계		2,009 (100.0)	2,279 (100.0)

2.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의 차이

첫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2와 같이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인 빈곤층이나 자신의 가정형편을 주관적으로 비빈곤으로 응답한 ‘긍정적 착각’ 아동이 41.6%였고 또 이와 반대로 객관적인 비빈곤층이나 자신의 가정형편을 주관적으로 빈곤으로 응답한 ‘부정적 착각’ 아동이 9.9%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아동 종합실태조사’의 빈곤아동 과표집으로 인한 데이터의 특성 때문인지를 확인하고자 ‘표본가중치’를 포함한 교차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도 역시 비슷하였는데 즉, 객관적인 빈곤층이나 자신의 가정형편을 주관적으로 비빈곤층으로 응답한 ‘긍정적 착각’ 아동이 37.5%, 객관적인 비빈곤층이나 자신의 가정형편을 주관적으로 빈곤층으로 응답한 ‘부정적 착각’ 아동이 10.2%로, 전체아동에게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의 차이 교차분석

단위: 빈도(%)		주관적 빈곤인식			Chi-square
		빈곤	비빈곤	전체	
객관적 빈곤지위	빈곤	446(58.4%)	318(41.6%) (=긍정적 착각)	764(100.0%)	547.512***
	비빈곤	123(9.9%) (=부정적 착각)	1,120(90.1%)	1,243(100.0%)	
전체		569(28.4%)	1,438(71.6%)	2,139(100.0%)	

*** $p < .001$

첫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아동(가구)의 특징은 무엇일까? 다음 표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 착각이 발생하는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농어촌에 거

주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초등학교 아동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 착각이 발생하는 아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가정의 중·고등학교 아동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의 차이에 따른 아동(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유형별 아동(가구) 일반사항: N(%)		객관빈곤 주관빈곤	객관빈곤 주관비빈곤 (긍정적 착각)	객관비빈곤 주관빈곤 (부정적 착각)	객관비빈곤 주관비빈곤
아 동 성 별	남자	213 (47.8)	144 (45.3)	54 (43.9)	584 (52.1)
	여자	233 (52.2)	174 (54.7)	69 (56.1)	536 (47.9)
아 동 연령대	만 9-11세	121 (27.1)	103 (32.4)	35 (28.5)	378 (33.8)
	만 12-17세	325 (72.9)	215 (67.6)	88 (71.5)	742 (66.3)
거 주 지 역	대도시	190 (42.6)	129 (40.6)	54 (43.9)	450 (40.2)
	중소도시	195 (43.7)	124 (39.0)	58 (47.2)	466 (41.6)
	농어촌	61 (13.7)	65 (20.4)	11 (8.9)	204 (18.2)
가 족 유 형	일반가정	86 (19.3)	81 (25.5)	78 (63.4)	1,009 (90.1)
	한부모 및 조손가정	358 (80.3)	236 (74.2)	43 (35.0)	96 (8.6)
아 동 학교급	초등학교	154 (34.5)	140 (44.0)	39 (31.7)	486 (43.4)
	중등학교	150 (33.6)	105 (33.0)	49 (39.8)	380 (33.9)
	고등학교	140 (31.4)	73 (23.0)	34 (27.6)	254 (22.7)
계		446 (100.0)	318 (100.0)	123 (100.0)	1,120(100.0)

3. 아동 삶의 만족도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 간의 관계

두 번째 연구문제인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은 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4와 같이 ‘객관적인 빈곤지위’에 따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인 빈곤인식’에 따라서도 아동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객관적인 지위의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그리고 주관적인 인식의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모두에서 체감하는 아동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 주관적 인식에서의 빈곤과 비빈곤 간의 차이($t=-10.622^{***}$)가 객관적 지위에서의 빈곤과 비빈곤간의 차이($t=-3.759^{***}$)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빈곤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의 차이검증 (가중치포함)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N	M(SD)	t
독립변수	객관적 빈곤지위	빈곤	111	3.03(.669)	-3.759***
		비빈곤	2,168	3.27(.554)	
독립변수	주관적 빈곤인식	빈곤	290	2.87(.673)	-10.622***
		비빈곤	1,989	3.31(.522)	

*** $p<.001$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지수(VIF)가 최소 1.022(아동성별)에서 최대 1.659(학교생활만족도)로 기준점($VIF \geq 10$)보다 낮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동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가중치 포함)

독립변수		B	SE	β	t
독립	객관적 빈곤지위	.012	.049	.005	.239
	주관적 빈곤인식	-.251	.034	-.145	-7.290***
통제	아동성별	-.006	.019	-.006	-.321
	가구소득	.000	.000	-.022	-1.173
	아동연령	-.014	.004	-.067	-3.758***
	우울 및 불안감	-.080	.034	-.043	-2.385*
	스트레스	-.161	.019	-.160	-8.335***
	결핍환경	-.016	.004	-.070	-3.577***

독립변수		B	SE	β	t
통 제	자이존중감	.402	.027	.322	14.776***
	주보호자와의 관계	.177	.019	.183	9.189***
	학교생활 만족도	.043	.028	.034	1.526
	친구애착	.122	.024	.096	4.994***
R ²		.425			
Adjusted R ²		.421			
F		120.491***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독립변수인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을 살펴보면 객관적 빈곤지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빈곤인식이 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아동 연령, 우울 및 불안감, 스트레스, 결핍환경, 자이존중감, 주보호자와의 관계, 친구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빈곤인식과 달리 객관적인 빈곤지위가 아동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대체로 객관적인 소득격차보다 주관적인 인식 불일치(perceived discrepancy)가 삶의 만족도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현송, 2001). 더 나아가 아동에게 객관적인 ‘소득’의 의미는, 부모 혹은 성인과는 또 다른 준거기준으로 개념화되어 있어서(이현송, 2001) 아동 삶의 만족도는 사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 자체보다 오히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가족관계나 사회적 지지체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유정원, 김형모, 2012)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설명들은 아동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빈곤인식의 강한 영향력에 대한 반증이다. 즉, 종속변수인 아동 삶의 만족도에 독립변수인 주관적 빈곤인식이 객관적 빈곤지위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이 일치하는 집단(1,566명/78%)이 다수인 분석대상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다중회귀분석에서 주관적 빈곤인식이 객관적 빈곤지위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량을 상당부분 가져갔기 때문에 객관적 빈곤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자면 이 결과를 통해 기존의 위험요인(아동연령, 우울 및 불안감, 스트레스, 결핍환경)과 보호요인(자이존중감, 보호자와의 관계, 친구애착)이 아동 삶의 만족도를

감소 혹은 증가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더불어 독립변수인 아동이 체감하는 ‘주관적 빈곤인식’도 아동 삶의 만족도를 감소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인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은 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주관적 빈곤인식만이 아동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4.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착각 간의 관계

이어서 세 번째 연구문제인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지수(VIF)역시 최소 1.037(아동성별)에서 최대 1.713(학교생활만족도)로 기준점(VIF≥10)보다 낮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독립변수		B	SE	β	t
독립	아동 긍정적 착각	.216	.045	.153	4.801***
	아동성별	-.077	.041	-.055	-1.868
통제	가구소득	.000	.001	-.010	-.346
	아동연령	-.015	.008	-.054	-1.791
	우울 및 불안감	.014	.073	.006	.190
	스트레스	-.200	.041	-.166	-4.856***
	결핍환경	-.021	.007	-.100	-3.116**
	자아존중감	.540	.056	.341	9.613***
	주보호자와의 관계	.237	.037	.218	6.362***
	학교생활만족도	.028	.056	.019	.501
	친구애착	.016	.047	.012	.332
	R ²		.462		
Adjusted R ²		.452			
F		50.419***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독립변수인 ‘아동의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 스트레스, 결핍환경, 자아존중감, 주보호자와의 관계가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위험요인(스트레스, 결핍환경)은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켰고, 기존의 보호요인(자아존중감, 보호자와의 관계)은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차원에서 세 가지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빈곤인식의 중간값(3점~5점)을 제외하고 7점 척도 중 ‘1점~2점’을 빈곤인식으로 ‘6점~7점’을 비빈곤인식으로 구성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분석하고, 객관적 빈곤지위를 욕구소득비 ‘2’를 기준으로 ‘2 미만’은 빈곤, ‘2 이상’은 비빈곤으로 구성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분석하였으며, ‘차상위 가구’를 제외하고 ‘수급가구’를 빈곤, ‘일반가구’를 비빈곤으로 측정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추가분석에서 모두 ‘긍정적 착각’은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기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긍정적 착각’ 인식이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새로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 번째 연구문제인 ‘빈곤아동의 긍정적인 착각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 다른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차원에서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아동의 부정적 착각이 비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부정적 착각인식이 비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객관적으로는 빈곤층이나 주관적으로 비빈곤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의 발달을 위한 새로운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빈곤아동에게는 빈곤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에 있어 일치하지 않는 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의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 간의 일치에 관한 연구결과(이승기, 2008a)와 동일한 결과이다. 둘째,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빈곤이 아동의 발달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구인회, 2002; 윤희미, 2005; 박현선 외, 2006; 이완정 외, 2009)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빈곤아동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없는 아동 발달과정 상의 새로운 보호요인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객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고 이는 다른 위험요인(우울 및 불안감, 스트레스, 결핍환경)보다 더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빈곤의 객관적 지위보다 주관적 인식이 아동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즉, 객관적 상황에 관계없이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은 아동발달에 있어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아동 개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당사자들의 빈곤인식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대체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며 다양한 낙인이 존재한다(김정희, 2009). 아동기 삶에 대한 인식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빈곤인식’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빈곤아동의 강점에 주목한 접근이 필요하다(정선욱, 2011). 기존 연구와 다른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객관적 빈곤지위에 따라 아동의 주관적

빈곤인식도 일치하여, 이로 인해 아동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 선입견을 깬다는 점이다. 이는 빈곤자체가 아동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발견에 해당된다. 앞서 빈곤의 객관적 지위보다 주관적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은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빈곤아동을 위한 개입 방안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의 삶에 있어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빈곤의 측정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최저생계비나 중위소득의 50%라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측정되므로, 자신이 빈곤한지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주관적인 빈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주관적 빈곤인식은 빈곤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고 개입 방안을 다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승기, 2008a; 정선옥, 2011).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객관적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의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아동가구의 빈곤 측정에 있어 다양한 측정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부모는 자녀에 대한 최초의 교사이며, 결정적 발달시기에 미치는 부모로 인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실제 빈곤가정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과 심리상태는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행동을 유발하는 하나의 위험요인이 된다(정은희 외, 2010). 주보호자와의 관계는 성장하는 아동에게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부유함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아님을 부모 스스로 인식할 때 아동의 자존감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정선옥, 2011).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부모가 아동에게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빈곤아동의 삶에 짐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이 가정의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부모가 적절한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빈곤에서 오는 열등감은 건강한 아동의 인격형성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빈곤한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므로써, 빈곤인식의 대물림에서부터 보호하는 역할에 부모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열악한 생활조건으로 빈곤

아동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가족갈등이 깊어져, 부모가 아동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의 보호막이 되어 아동이 빈곤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교사 및 사회복지사들이 빈곤아동이나 비빈곤아동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차별 없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많은 언론보도나 연구결과들은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전해온 바, 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쉽게 빈곤아동의 문제 중심적 접근을 하도록 만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같이 실제 빈곤한 경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동이 빈곤을 느끼지 못하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즉, 긍정적 착각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과 같이, 아동에게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긍정적 착각을 가진 아동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농어촌에 거주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초등학교 아동 등)에서 보여지 듯, 빈곤아동의 이웃환경으로부터의 지원체계 구축이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는 농어촌의 한부모 및 조손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 없다면 빈곤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도시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라도 가족과 사회의 보호막을 통해 빈곤을 직접 느낄 수 없도록 지원한다면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와 반대로 부정적 착각 그룹의 특징(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가정 유형의 중·고등학교 아동)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환경에서의 상대적인 비교가 부정적 착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객관적 상황에 관계없이 주관적인 인식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발달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긍정적 착각을 가진 빈곤아동과 부정적 착각을 가진 비빈곤아동의 여러 가지 개별적 특성들이 고려된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빈곤아동의 주관적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이유와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아동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착각의 장점뿐만 아니라 긍정적 착각의 위험성에 대한 탐구도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이는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이 요구되며, 아울러 긍정적 착각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과연

아동의 어느 발달단계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이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아동의 내면화된 인식차원뿐만 아니라 외현화된 문제행동에도 긍정 혹은 부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재홍, 조기영 (2003). 청소년의 긍정적 착각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청소년상담 연구**, 11(1), 166-181.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분석. **한국 사회복지학**, 61(1), 57-79.
- 김광혁 (2006). 빈곤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4), 265-289.
- 김광혁 (2010).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 빈곤의 기간 시기, 정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1), 5-31.
- 김광혁 (2014). 가족의 경제적 박탈이 초기 아동기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비관사회 정책**, 42, 7-43.
- 김미숙 (2013). 빈곤아동 삶의 질과 소득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206, 35-47.
- 김미숙, 김은정, 이수진 (2014). **어린이재단 빈곤아동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연구보고 2014-14).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김정희 (2009). 차상위계층 여성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공공부조 수급경험. **사회복지 정책**, 36(1), 143-171.
- 문선화, 류기형, 김경호, 이경남, 홍봉선 (2000). 아동의 삶의 질: 과거, 현재, 미래. **한국아동복지학**, 9, 9-49.
- 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의 종단적 상호 관계: 빈곤 및 비빈곤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183-206.
-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303-330.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정책보고서 2013-92). 서울: 보건복지부.
- 배화옥 (2008). 한국아동복지현황과 정책과제(2): 아동빈곤의 결정요인분석(가족요인과 사회요인). **보건복지포럼**, 5, 23-32.

- 손태용, 정현정 (2014).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주관적 빈곤감에 대한 지역사회 보건사회 접근: 사회연결망의 매개효과 중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8(4), 243-255.
- 송건섭, 정미용 (2011). 주관적 빈곤인식의 측정과 영향요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1), 7-27.
- 성낙현, 표갑수 (2012). 농촌지역 빈곤아동의 학교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0(2), 41-63.
- 신현균, 김태희 (2011).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빈곤가정 아동의 우울 취약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역기능적 태도와 낮은 자존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4), 907-927.
- 신형진, 김규원 (2014). 가정환경 및 발달사항의 시계열적 변화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72, 85-106.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유정원, 김형모 (2012). 빈곤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생태체계 변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2), 231-257.
- 윤혜미 (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3), 133-164.
- 이명숙 (2013).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가족기능 및 진로 정체감의 영향: 한국-중국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20(4), 151-174.
- 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 빈곤 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아동학회지**, 12(1), 113-128.
- 이승기 (2008a). 객관적 빈곤가구와 주관적 빈곤가구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3), 99-116.
- 이승기 (2008b).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빈곤인식 및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85-107.
- 이완정, 권혜진, 양성은 (2009). 아동빈곤. **아동학회지**, 39(6), 337-347.
- 이현승 (2001).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욕구이론과 비교이론의 대비. **노동경제논집**, 24(1), 231-251.

- 장희선, 김기현 (2014).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누적적 위험요인의 효과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7, 185-216.
- 정선욱 (2011). 빈곤아동의 빈곤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181-201.
- 정선욱 (2012). 비빈곤층 초등학생의 빈곤인식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21(3), 285-302.
- 정은희, 이은아, 천성문 (2010). 빈곤가정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부모지지가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9(1), 63-85.
- 정익중, 김세원 (2011). 아동청소년발달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잠재적 유형 간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2(3), 197-230.
- 정익중, 민성혜, 박은미, 신혜원, 전해정 (2013). **빈곤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서울: 집문당.
- 천희영, 송영주, 이미란 (2014).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의 유형화 연구. **아동학회지**, 35(3), 71-92.
- 통계청 (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한국: 통계청.
- 홍순혜, 방진희, 엄경남 (2013). 아동대상 조사에서 활용되는 빈곤변수들 간의 비교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20, 255-280.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Bender, T. A. (1997). Assessment of subjective well-being during children and adolescence. In G. D. Phye (Ed.), *Handbook of classroom assessment: Learning, achievement, and adjustment*. Educational psychology series (pp. 199-22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radley, R. H., Whiteside-Mansell, L., Brisby, J. A., & Caldwell, B. M. (1997). Parents' socioemotional investment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77-90.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in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ie, J. D., Watt, N. F., West, S. G., Hawkins, J. D., Asnow, J. R., Markman, H. J., Ramey, S. L., Shure, M. B., & Long, B. (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some directions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 1013-1022.

- Conger, R. D., Elder, G. H. J., Lorenz, F. O., Conger, K. J., Simons, R. L., Whitbeck, L. B., Huck, S., & Melby, J. N.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56.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3). Family economic stress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06-219.
- Day, H., & Jankey, S. G. (1996). Lessons from the literature: Toward a holistic model of quality of life. In R. Renwick, & M. Nagler (Eds.), *Quality of life in health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Conceptual approaches, issues and applications*(pp.39-50). Thousand Oaks, CA: Sage.
- Duncan, G., & Brooks-Gunn, J. (1999).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Eamon, M. K. (2001).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 ecological systems approach. *Social Work*, 46(3), 256-266.
- Felner, R. D., Brand, S., Dubois, D. L., Adan, A. M., Mulhall, P. F., & Evans, E. G. (1995). Socioeconomic disadvantage, proximal environmental experiences, and socioemotion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Investigation of a mediated effects model. *Child Development*, 66, 774-792.
- Fraser, M. P., Cass, G. R., & Simoneit, B. R. T. (1999). Particulate organic compounds emitted from motor vehicle exhaust and in the urban atmosphere. *Atmospheric Environment*, 33, 2715-2724.
- Huebner, E. S. (1991). Initial development of the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2(3), 231-240.
- Luthar, S. S. (1999). *Poverty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CA: Sage.
- Lyons, M. D., Huebner, E. S., Hills, K. J., & Horn, M. L. (2013). Mechanisms of change i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5), 587-598.
- Martin, K., Huebner, E. S., & Valois, E. S. (2008). Does life satisfaction predict

-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adolesc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45(8), 705-714.
- McKnight, C. G., Huebner, E. S., & Suldo, S. M.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6), 677-687.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Proctor, C. L.,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83-630.
- Saha, R., Huebner, E. S., Suldo, S. M., & Valois, E. S.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Child Indicator Research*, 3(2), 149-165.
- Sameroff, A., Gutman, L. M., & Peck, S. C. (2003). Adaptation among youth facing multiple risks: Prospective research findings. In S. S. Luthar (Ed.),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hildhood adversities*(pp.364-39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lois, R. S., Zullig, K. J., Huebner, E. S., & Drane, J. W. (2004). Life satisfaction and suicide among high school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81-105.
- Weinger, S. (1998). Poor children “know their place”: Perceptions of poverty, class, and public messages. *The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5(2), 100-118.

ABSTRACT

The poverty perceptions of children and th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Is ignorance bliss?

Lee, Suejin* · Lee, Jungae** · Lee, Eunhee*** · Chung, Ick-Joong****

Whilst bearing in mind the mismatch between the objective poverty status and the subjective poverty perception of children, this study identified how the poverty perceptions of children affects their life satisfaction.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differences exist according to the positive illusion of poor children who subjectively believe that they are not in poverty regardless of their objective status of poverty and the negative illusion of non-poor children who subjectively believe that they are in poverty, poor children and non-poor children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Korean Youth General Survey 201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und that a mismatch existed between the objective poverty status and subjective poverty perceptions of children. Second, the positive illusion of poor childre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life satisfaction, while the negative illusion of non-poor children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life satisfaction. It was confirmed that subjective perceptions on poverty were more significant than their objective status of poverty in terms of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children participating in this

* Doctoral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Child Welfare, ChildFund Korea

** Doctoral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 Master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Yongin Mental Hospital Mental Health Social Worker

****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study. This study suggested that individualized approaches are be required according to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children, and even for the same group of poor children.

Key Words: poverty, poor children, poverty perception, life satisfaction, positive illusion

투고일: 2015. 6. 15, 심사일: 2015. 8. 17, 심사완료일: 2015. 9. 2